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몽골








Mongolia

2019년2월22일 | 조사역(G3) 김도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564천 km ² 	인구 311만명 (2018 ^e 기준)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성격)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27.37억 달러 (2018 ^e) 	1인당GDP 4,102.01 달러 (2018 ^e) 	통화단위 Tugrik(투그릭) 	환율(U\$기준) 2,449.70 (2018 ^e)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11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수출의 80%, 전체 세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몽골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 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1), 문화협력협정(1991), 투자보장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약(1993), 세관분야협력협정(1993),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208,710	228,353	307,744	수송기계, 농산물, 산업기계
수입	10,355	14,156	26,904	비금속 광물, 섬유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8.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12건, 470,602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7.9	2.4	1.2	5.1	6.2
소비자물가상승률	12.9	5.9	0.5	4.6	7.6
재정수지/GDP	-11.3	-8.5	-17.0	-1.9	-3.5

자료: IMF, EIU

광산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세로 2018년 6.2% 경제성장

- 몽골 경제는 2011~13년 광업 부문이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2014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 부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감 등의 악재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1.2%로 하락하였음.
 - 2017~18년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산 개발과 타반톨고이(Tavan Tolgoi)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고 석탄 수출이 증가함. 또한 공공근로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민간소비가 늘면서 2018년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현 수준의 투자유입이 전망되어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몽골 남쪽 고비 사막에 위치한 오유톨고이 광산은 구리(3,700만 톤), 금(1,275톤) 등이 매장된 세계 최대의 구리-금 광산이자 몽골의 전략광산으로, 동 광산의 2단계 프로젝트가 2019~20년 중 개발을 완료하고 2021~22년에는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타반톨고이 광산을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사는 2012년 총 주식의 14.5%를 국민들에게 무상분배(1인당 1,072주)한 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8년 중 대출상환을 완료하고 순이익이 증가하여 2019년부터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구매력 향상이 기대됨.
- * 채굴량 증가 및 석탄 수출가격 상승으로 2018년 9월 기준 총 4,830억 투그릭(약 1억 9,320만 달러)의 순이익 실현

석탄 가격 상승, 내수소비 증가 등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7.6%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0.5%로 급락하였으나, 2017년 투그릭화 환율이 상승을 지속하여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국제가격 반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경제가 회복되면서 4.5%로 반등함.
- 2018년에도 4분기 중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을 상쇄하는 내수소비 증가와 석탄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6%까지 상승함.

* 국제유가(WTI 기준, 달러/배럴) : 53.9('16년말) → 60.2('17년말) → 74.4('18.6월말) → 73.8('18.9월말) → 45.0('18년말)

IMF 등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추세

- 몽골 정부는 2010년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 제정을 통해 2013년부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개발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7%까지 확대됨.
- 이후 2017년 5월 GDP의 절반에 상당하는 약 5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IMF,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받고 세제 개편,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의 다양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펼침. 더불어 원자재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광업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5%로 상당 부분 개선됨.

* IMF 4.3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일본 약 30억 달러, 중국과 통화스왑 계약연장 약 22억 달러(150억 위안 상당)

- 몽골 정부는 IMF의 예산수입 증대 및 재정지출 감축 요구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술·담배 특별세율 인상(2018년 10%, 2019년 5%, 2020년 5%) 및 개인소득세율 인상(소득구간별로 10~25%까지 인상) 등의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제개편을 실시함.
- 또한 2018년 5월 중 '2018-20년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영은행인 State bank, 몽골증권거래소, 몽골항공, 몽골텔레콤, 농축산거래소 등 에너지, 도로·교통, 광업, 금융, 통신 분야 등 총 3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상수지	-1,379	-469	-700	-1,155	-1,054
경상수지/GDP	-11.3	-4.0	-6.3	-10.4	-8.3
상품수지	178	563	1,338	1,489	1,122
상품수출	5,471	4,447	4,804	5,834	6,803
상품수입	5,293	3,884	3,466	4,345	5,681
외환보유액	1,540	1,247	1,240	2,839	2,446
총외채	20,941	22,712	24,629	27,492	28,180
총외채잔액/GDP	171.3	193.3	220.2	246.9	221.3
D.S.R.	20.0	32.9	44.0	36.0	32.2

자료: IMF, EIU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개선

- 몽골은 2013년 오유틀고이 광산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광물 수출 확대로 2014년 이래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폭이 이를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8년에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한데 힘입어 -8.3%로 전년(-10.4%)대비 개선되었음. 다만, 2020년 중 완공 예정인 오유틀고이 광산 2단계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 대 중국 수출 감소 추세,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지속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

* 몽골의 수출 상위 3개국 : 중국(85.0%), 영국(10.7%), 러시아(1.1%)

외채상환능력

해외차관 도입 등으로 외환보유액 확충

-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2년 간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오유틀고이 광산 2단계 개발에 따른 투자 유입 효과,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에 힘입어 최근 2년(2017~18년) 간 2016년 외환보유액의 2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임.
- 2018년 외환보유액은 2016년(12.4억 달러) 대비 97.3% 증가한 24.5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3.1개월분을 기록함.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부담이 여전히 과중해 대외지급능력은 취약한 편

-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광산 개발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 대외차입으로 인해 2018년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은 221.3%로 높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인프라 건설 관련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2015년 이래 3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여전히 취약함.
- 다만, 몽골 정부는 2017년 상반기 중 IMF 구제금융 패키지 도입으로 부족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발행(14억 달러)으로 자금을 조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없어 단기적인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편임.

구조적취약성

3C(Coal, Copper, China)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탄, 구리 등 광업 부문은 GDP의 24.1%, 수출의 80%를 차지하며 몽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 산업임. 한편,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변동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
- 생산된 광물의 대부분(90%)이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 내 광물 수요가 몽골 경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몽골로 유입되는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25.3%(2018.3월 기준)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음. 몽골의 광업 부문 외에도 '초원의 길' 프로젝트 관련 철도·도로 건설, 전력 시스템 구축 등에도 중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견인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구리, 석탄, 철광석, 금, 형석, 몰리브덴 등 80여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석탄, 구리, 금, 철광석이 광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이 높음.

[표 1]

< 몽골의 주요 광물 추정매장량 >

구분	매장량
석탄	1,750억 톤 (세계 4위)
구리정광	5,500만 톤 (세계 2위)
철광석	15억 톤
금	3,000톤
형석	1억 톤
몰리브덴	3만 톤 (세계 11위)
우라늄	8만 톤 (세계 13위)
원유	45억 배럴
세일오일	7,880억 톤
희토류	3,100만 톤

* 자료 : 몽골 광업중공업부, KOTRA

- 몽골 정부는 2006년 광물법 개정 이래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거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5개의 국가 전략광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 전략광산 지분을 몽골 정부가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제화하고,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을 위해 2021년까지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및 전략광산을 연결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임.
- 특히 오유톨고이 광산은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으로, 2020년 중 2단계 지하광산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동 광산의 금·구리 수출은 GDP의 55%, 재정수입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정책성과

내륙국가의 한계 극복을 위해 물류 등 인프라 개발 추진

- 몽골은 내륙국가의 교통운송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기 위해 '초원의 길*'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몽-중-러 경제회랑을 추진해 철도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1,1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와 전력망, 천연가스관, 송유관 구축을 포함한 총 72억 달러 규모의 사업

- 중국, 러시아, 몽골 3개국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 간 연계를 통한 통관 및 운송 편리화를 실현하고자 2015년 7월 '몽-러-중 경제회랑'이라는 경제 협력 로드맵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함.

* 교통 인프라 협력 13개, 무역 및 세관 협력 4개, 환경협력 3개, 산업협력 2개, 에너지 협력 1개 등

- 몽골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망에 몽골을 연계하고 인근 주요 항만인 중국 천진항, 북한 나진항 물류 터미널 사용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교역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몽골 대통령은 2018년 9월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몽-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10억 루블)을 울란바토르 철도 개선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발표함. 몽골의 철도선 총 1,932km 중 1,815km를 몽골과 러시아 합작회사(Ulaanbaatar railway)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회랑의 중심 철도노선으로 향후 철로 개선 및 전력망 연결이 예정되어 있음.

해외차관 도입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 외국인직접투자 이탈 지속 등으로 재정난을 겪던 몽골은 IMF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석탄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이 개선되고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도 최근 2년 간 증가세를 보임.

- 몽골 정부는 2017년 초 IMF가 권고한 선행조치인 '2017년 추가경정예산 통과',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금지', '은행 자산건전성 검토' 등을 모두 충족시킴. 이후 3개월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평가받고 있으나, 2018년 10월말 5번째 평가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4% 이내'로 축소하는데 성공하는 등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 순조롭게 달성해가는 모습임.

* 중앙은행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8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 등의 활동을 의미

-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6년 42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몽골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상당 부분은 오유틀고이 지하광산 개발 투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13억 달러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IMF는 동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몽골 경제성장률이 8%대로 진입하고 외환보유액을 38억 달러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FDI 순유입액(백만 달러)	4,208	2,019	231	83	-4,171	1,446	2,060
전년대비 증감률	-	-52%	-89%	-64%	-5,125%	135%	43%

정치동향

정치권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단기적인 정치불안 고조

-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2012년 총선에서 인민당(MPP)을 제치고 승리하여 제 1당을 차지하였으며, 2013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엘베크도르지(Elbegdorj) 대통령이 50.9%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후 민주당 집권기(2012~16년) 동안 외국인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정당 내 계파 간 갈등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도가 하락함에 따라, 2016년 6월 총선에서는 인민당이 의회 내 절대적인 의석 (2/3 이상, 76석 중 65석 차지) 확보로 집권 정당이 됨.
- 그러나 2017년 상반기 IMF 프로그램 도입 및 긴축 재정정책 실행으로 인민당의 대중적 지지도가 하락하여, 동년 6~7월 실시된 대선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바툴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몽골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총선과 대선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2016년 집권 인민당이 절대적인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어 정치환경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만연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 인민당의 계파 갈등은 또 다른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 기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90%가 모두 현직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2018년 11월 말 인민당 의원 27명이 현 후렐수흐 총리 해임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됨. 현재까지 현 총리 내각 의원 2명과 14명의 현직 의원들, 여러 고위 관료들이 동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어 구속 기소됨.
-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3위이며, 평점은 37/10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사회동향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 몽골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2년마다 인상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노동부 결정으로 2019년에도 33.3%의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그간의 몽골 최저임금 인상 추이로 볼 때, 몽골의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시간당 1달러(42만 투그릭)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최저임금 변화 추이 >

연도	2008	2011	2013	2017	2019
최저임금(천 투그릭)	108	140.4	192	240	320
전년대비 증감률	20%	36.7%	29.7%	25.0%	33.3%

사회동향

경제 불균형 심화로 빈곤과 실업 문제 심화

-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도시 및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각함.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 개발이 미흡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되기도 함.
- 2017년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몽골은 189개국 중 92위로, 인구의 29.6%가 빈곤선 이하로 집계되었으며 지니계수도 0.32로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높음.
-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총 실업률은 8%, 청년실업률은 1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국제관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중립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3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 몽골은 외교적으로 최대 수출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모습을 보임. 또한 중-러 양국은 전통적으로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소 경쟁적인 구도에 있어, 몽골은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옴.
- 중국-러시아-몽골 3국은 최근 3차례('14.9월, '15.7월, '16.6월)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을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에 합의하고, 3자 간 공동계획 연구소를 울란바토르에 설립하는 한편 물류 터미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망 확충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개발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을 바탕으로 인접국(중국·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등 제3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 중임.
- 2015년 2월 일본과 최초로 EPA를 체결(2016년 6월 발효)한 데 이어, 2016년 7월 한국과 EPA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공동연구를 3차례 수행함.
-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등은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몽골에 진출하고 있으며 독일, 터키 등은 가전, 생활용품 등을 러시아 철도를 통해 몽골에 수출하고 있음.

외채상황태도

ECA 앞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나, 구제금융 등을 통한 대외차입의존도 높아

-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대 몽골 승인금액 16.2억 달러(단기 0.55억 달러, 중장기 15.6억 달러)중 단기채무비중이 3.4% 정도로 만기구조가 양호하며, 중장기 채무 중 6.6백만 달러(전체 승인금액의 0.4%)를 연체중임.
- 한편,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2016년 9월 중 만성적인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기록, 외환보유액 고갈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여러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등 외채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3(2018.01)	Caa1(2017.03)
Fitch	B(2018.07)	B-(2017.02)

국제신용평가 3사, 2018년 중 모두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향 조정

- Moody's는 2018년 1월 성공적인 국채 발행, IMF의 구제금융 승인 등을 근거로 몽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Caa → B3)하였으며, Fitch도 2018년 7월 경제성장 지속, 각종 경제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동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B- → B)하였음.
- 이후 S&P는 2018년 11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재정지출 억제로 재정상황이 호전된 점, 경제성장을 상승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상승 등을 고려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몽골은 2012년 이후 자원 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및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2017년 5월 IMF 등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 석탄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8년 중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며 6.2%의 높은 성장을 시현함.
-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7년 중 IMF 구제금융 지원 및 정부차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7%에 이르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8년 -3.5%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임.
-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절대적인 의석 수를 확보한 이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유지되었으나, 2018년 말 드러난 중소기업발전기금의 부정대출 사건에 여러 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음.
- 또한 만성적인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로 대외차입이 늘면서 2018년 중 GDP 대비 총외채 비중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221.3% 및 32.2%에 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D2로 유지코자 함.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몽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OECD 6등급) (수은 D2)	(OECD 6등급) (수은 D2)	(OECD 7등급) (수은 D2)	(OECD 6등급) (수은 D1)
GDP 규모(억 달러)	127	288	3,124	901
1인당 GDP(달러)	4,102	971	1,583	4,153
경제성장률(%)	6.2	6.3	5.8	3.7
소비자물가상승률(%)	7.6	4.2	4.3	4.9
재정수지/GDP(%)	-3.5	-5.5	-5.7	-4.6
경상수지/GDP(%)	-8.3	-7.5	-4.9	-3.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3.1	8.1	3.3	2.6
외채상환액/총수출(%)	32.2	6.8	10.6	16.7
총외채잔액/GDP(%)	221.3	17.5	27.4	61.2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21.4	5.6	58.5	105.3